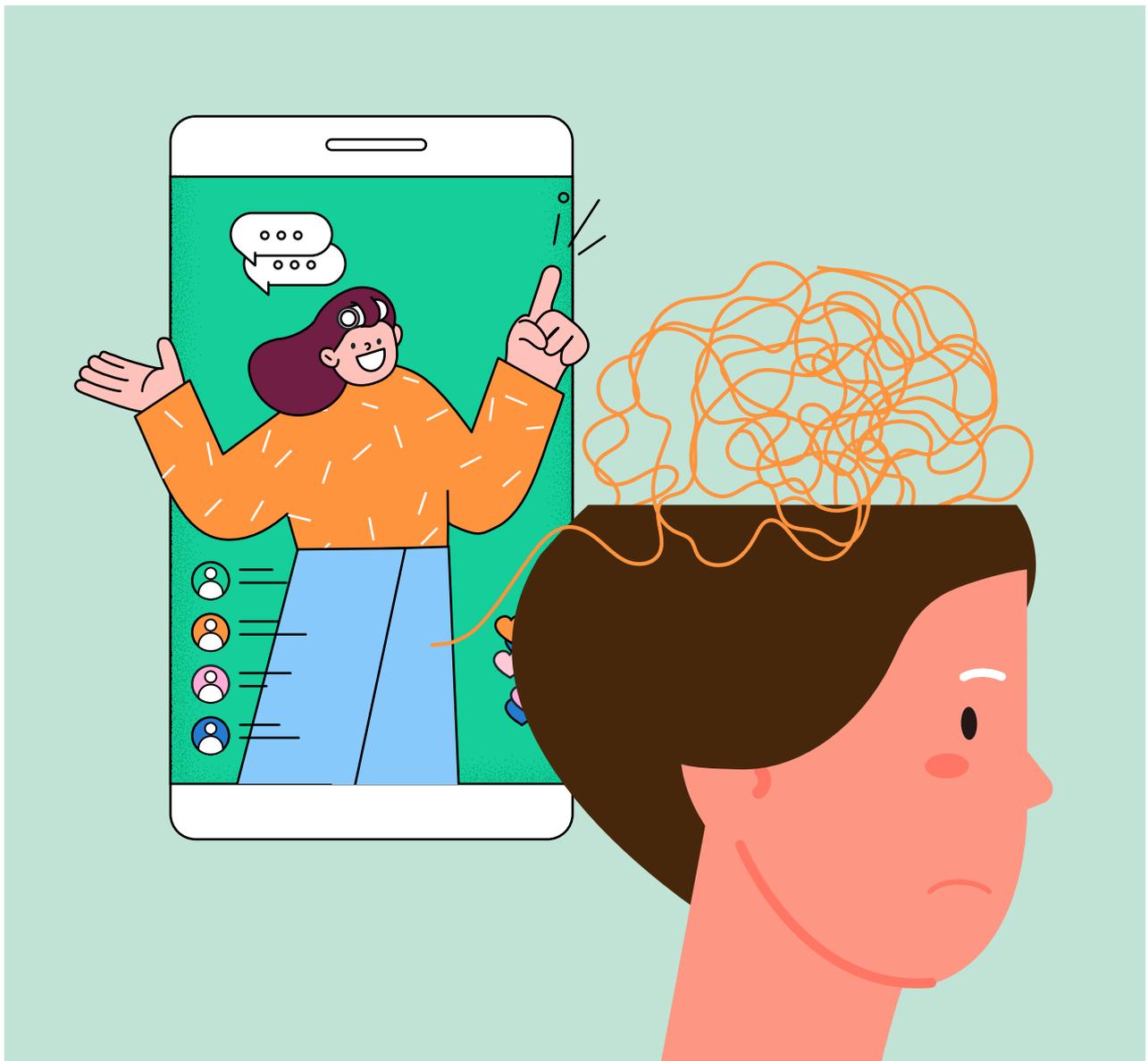


# 참사람 36.5°C

Vol. 25 | 2023년 2월 | Monthly |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 CONTENTS 목차

## 발행일

2023년 2월 1일 수요일  
Monthly

##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Tel. 02-925-8925

## 교보교육재단 공식 홈페이지

kbedu.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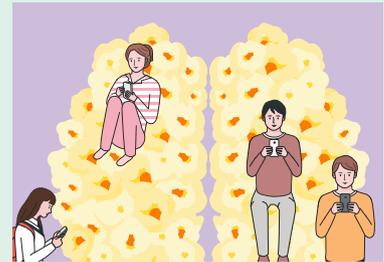
## 참사람 36.5°C 온라인

chamsaram.org



## Cover Story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요즘 가장 대세라는  
'숏폼' 플랫폼들입니다.  
3초에서 1분 사이의  
짧막한 시간 내에 이목을  
끌기 위해 콘텐츠들은 점점 더  
선정성과 폭력성을 띄게 되는데요,  
이러한 숏폼 콘텐츠의 반복시청이  
자극적인 내용에만 반응하는  
'팝콘 브레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청소년의 숏폼 시청,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04

참사람을 말하다

**팝콘 브레인 주의보 :  
우리의 뇌를 사로잡은  
10초짜리 디지털 마약**



## 06

내가 만난 참사람 \_ 에세이

**타인의 친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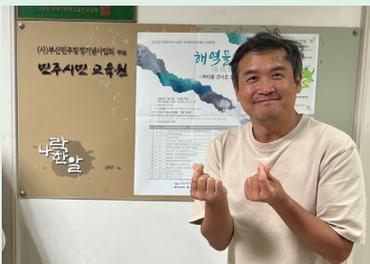
글 \_ 참사람 독자 오병일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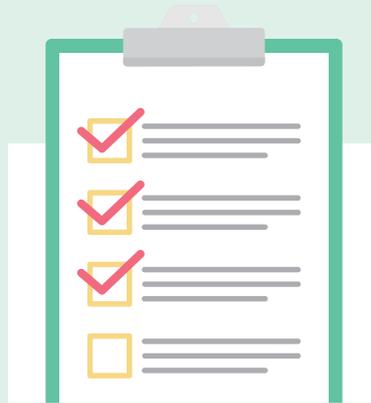
책으로, 참사람으로  
‘지구 끝의 온실’을 읽고  
지구를 살릴 당신께 드리는 편지  
글 \_ 나주 금성고등학교 오소연

‘지구 끝의 온실’은 어떤 책?  
글 \_ 오윤주  
수원 수일여중 교사/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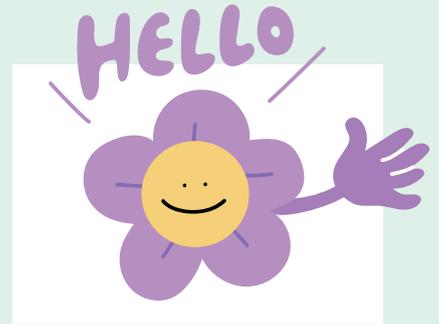
11

참사람 인터뷰  
2022 교보교육대상  
평생교육 부문 수상단체  
‘나락한알’ 김동규 원장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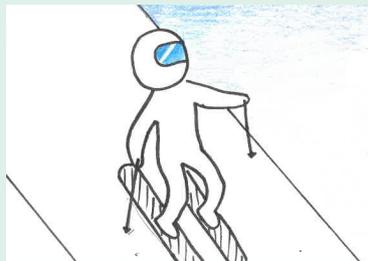
14

슬기로운 청소년 생활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2023년 달라지는 정책 살펴보기



18

2023년도  
교보교육재단 주요사업  
일정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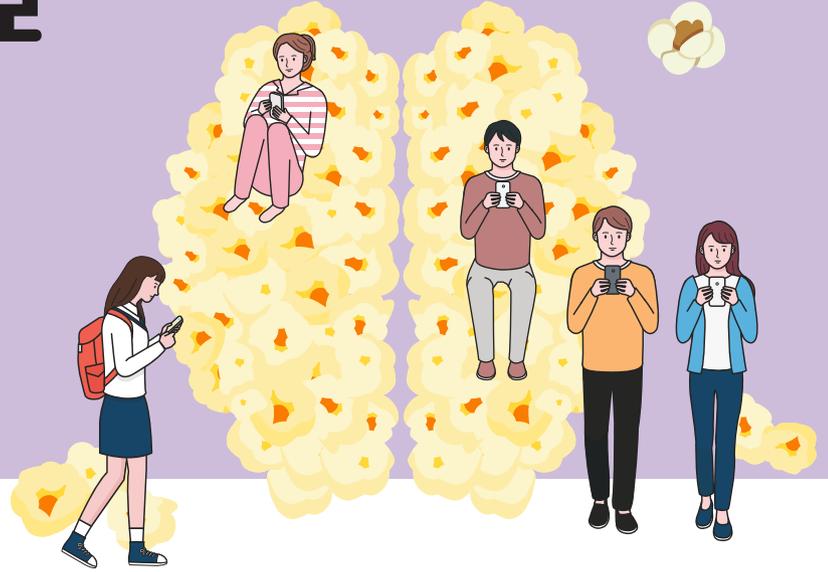


16

청소년 응원 프로젝트  
네컷툰 수상작품 소개

# 팝콘 브레인 주의보

## 우리의 뇌를 사로잡은 10초의 디지털 마약



### 숏폼이 대세

2022년,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사이트는 어디였을까요? 웹 검색의 제왕 구글도, SNS를 대표하는 페이스북도 아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가장 많은 방문자 수를 기록한 사이트는, 다름 아닌 '틱톡TikTok'이었습니다.

숏폼(Short-form : 짧은 길이의 영상 콘텐츠)의 인기를 견인하는 틱톡의 반향이 매섭습니다. 방문자수 1위는 물론 6.7억만 건의 앱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어플리케이션 분야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틱톡 안에서만 무려 10억 명이 활동하고 있다 하니, 전 세계 인구의 8분의 1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틱톡 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짧은 콘텐츠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유튜브 역시 틱톡과 유사한 형태의 '유튜브 쇼츠(Shorts)'를 출시했고, 인스타그램도 동일한 포맷을 갖춘 '릴스(Reels)'를 내놓으며 시장에는 불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말 그대로 숏폼 춘추전국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대체, 어쩌다 모두가 이 짧은 동영상 서비스에 매혹되었을까요?

### 팝콘 브레인 주의 경보!

복잡하거나 깊이 있는 콘텐츠에 피로감을 느끼는 현대인들의 시대적 경향과, 더 쉽고, 더 편하며, 단순화된 것들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숏폼은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긴 글을 쓰거나 보는 걸 기피하는 탓에 140자 제한의 트위터가 등장했고, 가만히 보기만 해도 정보를 전해주는 영상들이 기존의 문자 매체를 대체했다가, 중국에는 그 길이까지 짧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숏폼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자극적인 콘텐츠 성향입니다. 길어봐야 1분, 짧으면 5초 내외의 시간 안에 재미를 전달해야하기에 과감히 기-승-전-결의 구조를 파괴합니다. 즉각적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콘텐츠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영상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둘, 낮은 진입장벽입니다. 이용자는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를 이용하기 위해 특정한 사용법을 익힐 필요가 없습니다. 검색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나 능동적인 집중력 없이도 사용자가 좋아 할만한 영상을 '무한대'로, '자동제공'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이 알고리즘에 갇힌 채 빠져들 수밖에 없지요.

전문가들은 숏폼의 이러한 특성들이 유발하는 악영향을 우려합니다. 많은 유저들이 '숏폼을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짧은 영상에 익숙해진 뇌는 더 이상 긴 길이의 콘텐츠에 몰입할 수 없으며, 자극적인 영상들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게 되지요. 손 쉽게 쾌락을 손에 넣은 우리의 뇌는 중독 증세를 보이며 점점 더 자극적인 정보를 찾게 되는데, 결국 '팝콘 브레인'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팝콘 브레인인 워싱턴 대학교의 데이비드 레비 정보대학원 교수가 지난 2011년 처음 주장한 용어로, 튀어 오르는 팝콘처럼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뇌를 일컫습니다. 디지털 매체의 빠르고, 강렬하고, 선정적인 자극에 익숙해져 현실세계의 느리고도 약한 자극에는 무감각해지는 현상이 특징이지요.

팝콘 브레인이 진행된 사람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차분히 임해야 하는 과업을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 내에 결말을 짓거나 욕구가 해소되어야 만족하고, 감정의 통제가 쉽지 않아 충동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지요. 긴 서사를 어렵게 여겨 책이나 영화에 집중하지 못하며 학습에도 난항을 겪습니다. 오늘 날 젊은 세대의 문제로 손꼽히는 문해력 저하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유입니다.

### 숏폼의 주요 소비자, 다음 아닌 청소년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숏폼의 주요 소비자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고 세상에 나온 '디지털 네이티브', 바로 Z세대인 우리 청소년들이라는 점입니다. 작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개한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서비스는 동영상이었으며, 이용 플랫폼은 1위가 유튜브, 2위가 유튜브 쇼츠, 3위가 릴스, 4위가 틱톡으로 2~4위까지 전부 숏폼이 차지했습니다.

더군다나 플랫폼 이용 청소년의 28.1%가 직접 촬영해 올려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단순히 숏폼을 소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생산의 주체로까지 나선다는 특징을 보였지요. 문제는 이미 선정성이 자리 잡은 숏폼 서비스에서, 청소년들이 제작하는 영상 또한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청소년 자살을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퍼포먼스 챌린지 영상 '나는 실패작이래'가 숏폼 내 빠르게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기절 챌린지' 영상이 틱톡을 통해 유행하던 와중 한 청소년이 실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지요.

### 제한 정책, 우리나라는?

최근 미국은 자국 내 틱톡 서비스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8개 주의 법무부 장관이 틱톡의 유해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인디애나주 검찰은 틱톡이 부적절한 콘텐츠와 보안 환경으로 청소년을 위협하고 있다며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은 NBC 인터뷰를 통해 '틱톡은 디지털 펜타닐(중독이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이라며 숏폼 서비스의 유해성을 크게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틱톡에 '청소년 모드' 서비스를 신설했습니다. 14세 미만의 경우 실명 인증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며, 하루에 40분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것이지요. 청소년 모드에서는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또한 과학 실험이나 박물관 소개 등 교육적 성격을 담은 영상 중심으로 짜여있습니다.

이처럼 각 국가들이 숏폼 서비스로부터 청소년을 지키는데 안간힘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구체적인 제도나 정책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청소년의 숏폼 이용을 온전히 학부모의 관심과 잔소리에만 맡겨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하지만 언제나 역사가 증명하듯,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건' 더 재미있고 더 하고 싶은 것이 청소년들의 법칙. 점점 짧아지는 주의 지속 시간과 저하되는 문해력, 호습이 긴 글이나 자료를 기피하는 트렌드가 어떤 문제를 불러올지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숏폼 이용의 방향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나서서 논의하지 않는다면, 이 중독성 강한 디지털 서비스에 모두가 잠식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올바른 숏폼 이용방안

- ✓ 하루에 특정한 사용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이용한다.
- ✓ 이용시간 외에도 습관적으로 앱을 여는 행동양상이 보일 경우 일정기간 숏폼 서비스를 삭제한다.
- ✓ 숏폼 이용과 관련하여 과도한 중독/충동/과잉 행동 양상이 보인다면 전문가 상담을 진행한다.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 타인의 친절

글\_오병일

아침이 오기 전 칙칙 같은 어둠이 짙게 내린 새벽 6시, 그 어둠 사이로  
경광등의 불빛이 반짝인다. 어둠에 깊이 숨어 보이지 않던 것들이  
경광등의 짧은 번쩍임 사이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해준다.  
빨간색과 파란색의 찰나 같은 반짝임 한 번에...

여느 때처럼 6시면 강변을 달리고 있는 회색 운동복에 검은 모자를  
쓴 아저씨의 모습을 시작으로 여느 때처럼 술에 취해 알아들을 수  
없지만 세상에 대한 원망과 자신만의 한(限)을 작은 골목길에 주저앉아  
뱉어내는 주취자 아저씨, 누군가에겐 지저분한 쓰레기지만 누군가에겐  
아픔, 버리지 못했던 추억이 담겨있을 주황 봉투를 여느 때처럼  
무심한 손길로 담은 7845번 환경미화원 아저씨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듯한 어두운  
색의 두툼한 패딩과 차가운 공기 중 하얀 입김만으로 작은 존재감을  
알리며 걸어가는 아주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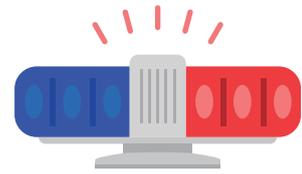
인적이 드문 어느 촌 길로 여느 때처럼 걷고 있던 그 모습이 한결  
같았지만 다른이들처럼 목적을 알 수 없는 아주머니의 모습에 그 날  
따라 경찰관으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문득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혹여나 실례가 될까 조심스레 창문을 내려 "날씨가 추운데  
가시는 길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라고 여쭙자 한사코  
손사레를 치며 작은 농로 길로 빠르게 모습을 감추던  
아주머니의 모습에 발길을 돌려야했지만 무슨 사연을  
가지고 계신지, 매일 같이 이른 시간 인적이 드문 시골길로 가는 그  
아주머니가 궁금하기도, 한편으론 걱정스럽기도 하였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 다시 그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지난번과  
같은 나의 물음에 또 거절하시기엔 마음이 쓰이셨는지 쭈뼛쭈뼛  
순찰차에 몸을 올리시고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시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아주머니는 면 소재 작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으로 몇 해 전 교회에서 노인분들 대상 봉사활동을하며 맺은 인연으로 3년 째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으로 아침 출근 전 거동이 불편하신 독거노인이 챙겨드릴 반찬을 드리고 청소도 해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아주머니도 바쁘실텐데.....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나도 모르게 나와 버린 일상에 찌든 부끄러운 속마음에 아주머니께서는 "나는 사람 팔아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도 여유롭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건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쁨이에요" 라는 짧은 한 마디에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을까?' 라는 메아리가 가슴에 부딪혀 번져나와 한 동안 말을 잊지 못하였다.

그렇게 짧은 시간을 달려 허름한 집 앞에 도착했다. 아주머니께서는 "경찰관 아저씨 우리 식당에 따뜻한 밥 한끼 꼭 하러 오세요. 내 차비는 그걸로 대신할게요" 라는 인사말과 함께 허름한 집으로 들어가는 뒷 모습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다.

난 평소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경찰관인데.....도움이 꼭 필요했던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겠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허망함과 아주머니가 보여준 '타인의 친절'에 과연 나는 타인에게 어떤 경찰관.....아니 어떤 사람인가라는 생각에 잠기게 하였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어떠한 댓가를 바라지 않고 나의 작은 도움으로 타인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기꺼이 나의 작은 도움을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타적인 삶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오늘도 나는 차갑고 비좁은 순찰차에 몸을 넣고 여느 때처럼 순찰을 돈다. 차에서 마시는 뜨거운 커피 한 모금보다도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삶이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아주머니가 보여준 행동에 가슴 한 곳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빨간색, 파란색 경광등을 번쩍이며 골목길을 누빈다.



# ‘지구 끝의 온실’을 읽고 지구를 살릴 당신께 드리는 편지

글 \_ 나주 금성고등학교 **오소연**

To. 미래 이 편지를 줌게 될 당신께

안녕하세요, 저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당신은 현재 제가 쓴 편지를 우연히 줌게 되어 읽고 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현재 그곳의 상태는 어떤가요? 제가 살고 있는 시대는 환경파괴로 인해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위험사태를 조금이라도 저속 시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 의식은 무시한 채 조만간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까 싶어 정도로 끊임없이 환경을 파괴해 오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살고 있는 시대까지도 지구가 무사히 살아 있다면 더 이상의 파괴를 막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신만이 앞으로의 우리 인류의 미래를 살릴 영웅이자 주인공입니다. 사실 이 편지만을 읽고선 누가 장난치는 게 아닌가 싶을 수도 있다는 것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 출간되어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지구 끝의 온실”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떠올려 보고 난다면 더 이상 제 말을 장난으로 넘기지 못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저는 이 책 속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앞으로의 미래에게 주는 경고문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들이 점차 현실이 되어가는 일은 머지않았으며 이미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시점으로라면 아마 몇 십 년 전에 출간되었을 “지구 끝의 온실”에 등장하는 세발잔털갈고리덩굴, ‘모스바나’라는 식물이 과연 책 속에만 존재하는 생명체일까요? 이 식물은 피부에 닿기만 해도 심한 간지럼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과 다른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 물질이 검출된 미스터리 하고도 아주 위험한 식물로 등장하죠. 저는 당신이 살고 있을 미래 또한 이 식물과 같이 지구에 재앙을 불러일으킬 생명체가 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지금도 바이러스와 바이러스 변이들로 인한 피해들이 매우 막심합니다. 그렇기에 그 시대에는 생명체에 해를 가하는 또 다른 생명체가 탄생할 확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들 모두 인간의 무자비한 이기심으로 인한 개발과 파괴들 때문에 탄생하고 변이한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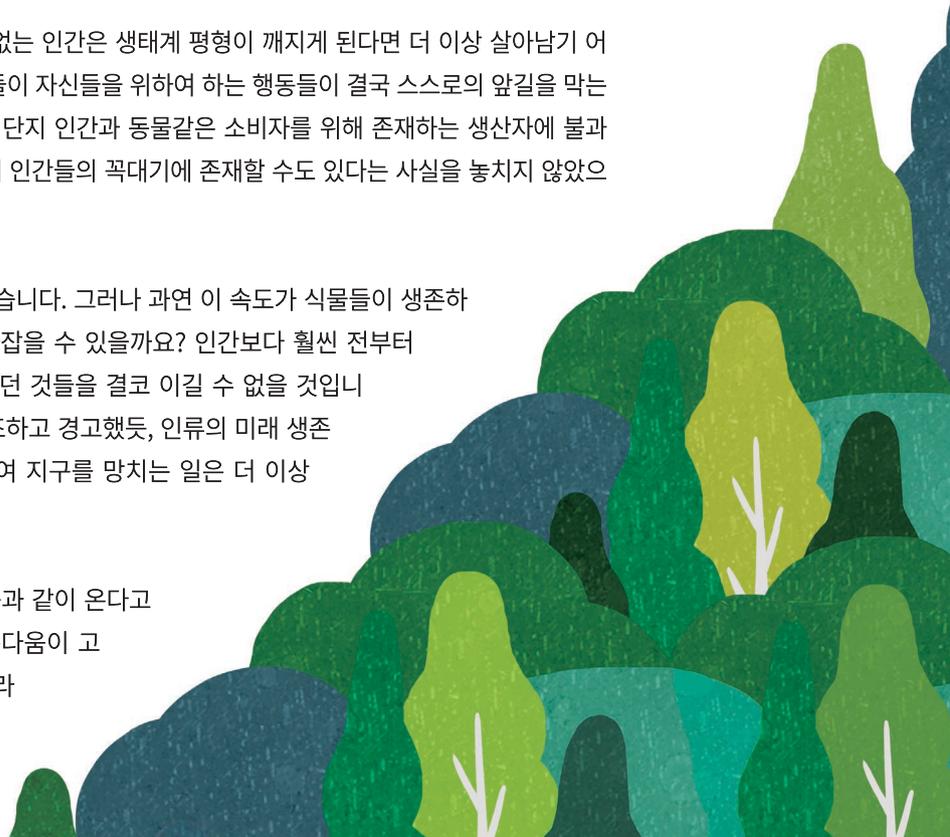
인간들은 보통 자연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자연이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간 중심주의의 인식을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 탄생의 마지막이 인간이듯 인간은 그저 지구의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 인간이 지구를 종말로 이끈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더 이상의 욕심을 막아야 합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 가능한 한계점을 이미 인간 스스로가 넘어 섰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먹이사슬과 생태 피라미드에 따라 본다면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달리 천적에 없다는 이유로 최상위층에 속한다는 어리석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생태계 구성 식물들은 천적이 존재하기에 먹이사슬 원리로 먹이 그물이 복잡하게 유지되어 생태계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듯 천적이 없는 인간은 생태계 평형이 깨지게 된다면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하는 행동들이 결국 스스로의 앞길을 막는 것은 모순된 표현이 아닐까요? 단지 인간과 동물같은 소비자를 위해 존재하는 생산자에 불과하다 생각했던 식물들이 오히려 인간들의 꼭대기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들도 충분히 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속도가 식물들이 생존하기 위해 변이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인간보다 훨씬 전부터 생존을 위해 자신들을 바꿔 왔던 것들을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 번 강조하고 경고했듯, 인류의 미래 생존을 위해서라면 자연을 훼손하여 지구를 망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책에는 ‘고통은 늘 아름다움과 같이 온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니면 아름다움이 고통과 늘 함께 오는 것이거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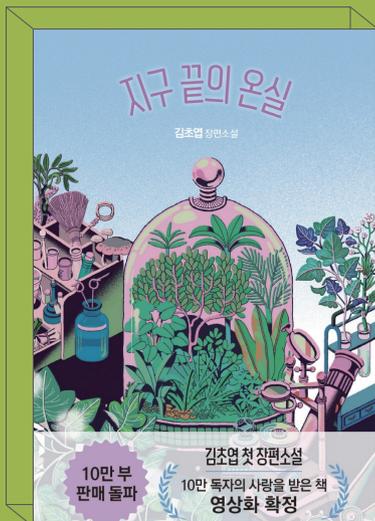
는 말 이 등장합니다. 단순히 이 말을 바라보고만 있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유지시키고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에 따른 노력에 대한 고통이 있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저 또한 이 책을 읽고 인간과 자연의 존재와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신께 드리는 말 대부분이 이 책을 통해 갖게 된 제 생각들입니다. 이 책을 읽기 전인 당시까지만 해도 사실상 저는 이 문제들에 대해 큰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을 읽는 것을 계기로 지구로부터 갖게 될 우리의 과제와 심각성을 알게 되었으며 현재 제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등과 같은 문제들 또한 제가 제시했던 문제점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 또한 이 문제들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알아봐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실 더 많은 말들을 당신께 전달해드리고 싶음에도 모두 전달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 파악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사실 ‘당신’의 존재는 이미 정해져 있는 등의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당신’이 되어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게 될 사람이 불특정 다수가 될 지, 소수가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편지를 줬게 된 당신이 어느 누구든 간에 이 지구를 살릴 유일한 사람이라 믿습니다.

## ‘지구 끝의 온실’은 어떤 책?

지속 가능한 세계를 고민할 때 도움을 줍니다.



<지구 끝의 온실>은 더스트로 멸망한 이후의 세계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멸망 이후의 세계라니요! 코로나 19 시대를 겪으면서 그것은 실현 가능한 상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가 지속 가능할까 하는 걱정과 불안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세계에 대한 고민, 멸망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 등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먼저 더듬어 보는 김초엽의 <지구 끝의 온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야 할까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던져 줍니다. 우리 인간은 이 지구에서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구는 우리 인간을 언제까지 품어줄 수 있을까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다정하고 따뜻한 답을 <지구 끝의 온실>에서 찾아봅시다.



### 오 윤 주 수원 수일여중 교사/소설가

책 읽기를 좋아하던 여자아이는 여전히 책 읽기를 좋아하고 가끔 쓰기도 하며, 학생들과 함께 책을 읽는 국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읽는 삶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믿으며, 오늘도 또 생의 한 페이지를 책과 함께 열어갑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일상 속 민주주의를  
평~~생 교육합니다.”

##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을 만나다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은 ‘시민이 주인공이다’를 모토로 2010년 설립된 단체이다. 생활 민주주의 확산과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이 2년 넘게 준비하여 만들어졌다. 나락한알은 정치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의 라이프 스타일과 접목된 교육을 표방, 새로운 민주시민 교육의 장을 열고 있다. 놀며, 배우는 ‘사람’의 터를 꿈꾸는 나락한알의 김동규 원장을 만나 일상 속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민주시민교육 출발은 삶의 주인됨

“여기 도대체 뭐하는 곳이야?” 나락한알에 처음 오신 분들은 다들 물어봐요.  
그럴 때 저희는 “나락한알은 시민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곳이다”라고 답변 드리죠.”

민주시민 교육을 떠올리면 정치, 선거, 정당 등이 먼저 떠오른다. 으레 민주시민 교육은 딱딱하고 지루하다는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 하지만 나락한알은 다르다. 경직성과 비일상성을 벗어나 일상 속에서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민주시민이 되는 법을 알려준다. 사람들이 자기 삶의 주권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일. 나락한알이 지금껏 해온 일이고, 가장 잘하는 일이다.

“자기 삶에 주인이 되는 게 민주시민교육의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민주시민 교육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삶에 대한 교육입니다. 주권자로서 역량을 표출하고 조정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이지 특정 이념이나 제도참여로 좁아져서는 안 됩니다.”





어릴 부터 삶의 주인이 되라는 말을 들으며 컸지만 자기 삶의 결정권을 갖는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기보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편하고 익숙하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이 건재한 문화 속에 사는 우리에게 더 그렇다. 그래서일까? 2022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선택의 자유 항목'에서 조사국 146개국 중 113위라는 초라한 성적을 받았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게 어렵죠. 그래도 신뢰의 경험치가 쌓이면 실패하더라도 계속 도전하게 됩니다. 나락한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요. 처음에는 과연 이게 될까? 하던 분들도 자기가 하고 싶던 내용이 실제 이뤄지는 것을 보며 큰 성취감을 느껴요.”*

*“평생의 버킷리스트가 드림 배우기였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결국 3년 간 꾸준히 드림을 배우시며 주변에 입소문을 내시더군요. 또 다른 선생님은 지역 정보를 지역 사람들이 모른다며 주막투어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셨어요. 부산은 피난도시라 문화예술인들이 주막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드셨거든요. 그걸 공유하는 교육을 기획하신 거지요. 이처럼 참여자가 교육과정을 기획하며 콘텐츠를 개발하여 스스로 교사가 되는 일, 여기에선 일상입니다.”*

### 신뢰와 재미로 쌓아 올린 원동력

나락한알이 쌓아온 신뢰와 재미는 시민들 자신이 주체가 되어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를 위해 나락한알은 사전에 준비된

기획을 줄이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 만들어 나가는 DIY 교육 방식을 적극 도입하였다.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아젠다 메이커스', 차별 금지를 주제로 한 '너와 나의 만찬' 보드게임은 그렇게 고민하며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민주시민보드게임을 함께 만들고 싶은 분들을 모았는데 나이, 성별, 계층 구분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이들에게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힘은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졌다. '너와 나의 만찬' 보드게임을 출시한 뒤 영상콘텐츠 제작을 하고, 사무실 내 장애 차별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나락한알 사무실 내 점자 소개 안내문, 경사로 등이 설치되었다. 시민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자연스럽게 발휘한 것이다. 일상 속 민주시민 교육이 실현된 순간이었다.

### 이상적인 민주사회와 민주시민

나락한알이 그리는 민주사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걸 표현하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와 공감하고 공감하는 사회가 이상적인 민주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민주시민으로서의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 주체성만큼 중요한 것이 타인과의 공감능력이다. 관계 속에서 서로 주인이 되려면 다른 존재를 깊이 인정해야 한다. 나와

다른 존재가 어떻게 느끼고 아픈지를 예민하게 감지하는 사람이 진짜 민주시민의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나와 다른 존재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포함해요. 그 존재들이 자기 삶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니까 환경위기나 지구의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나락한알 슬로건을 ‘놀이 배우는 ‘생명’의 터로 바꿀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넓게 민주시민 교육을 보는 거죠.”

나락한알이 있기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된 김동규 원장은 스스로를 양서류 인문학자라고 칭한다. 철학교수이자 연구자로서 학교와 시민사회 경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사회와의 소통을 강조한다. 대학의 벽을 깨고 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힘줘 말한다.

“나락한알 활동을 하면서 교육의 근본은 인간에 대한 신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고 서로 가르칠 수 있어요. 모두가 서로 믿는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민주적 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지역의 평생교육 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꾸준히 사람의 터를 가꿔온 나락한알의 다음 목표는 지역 평생교육 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다. 지역과 지역을 잇고, 새로운 장소성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은 지역 교육을 튼튼하게 만들고 결정권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나락한알은 교육의 선순환을 즐기는 사람을 키우고, 이들이 또 다른 선순환을 만들어 내는 일을 지속하고 있다.

놀이 배우는 민주시민들과 함께 지역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갈 나락한알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2023년 달라지는 정책 살펴보기

2023년을 맞이한지 어느덧 한달이 지났습니다.  
올해 역시 많은 정책과 제도들이 작년과 달라지는데요,  
〈슬기로운 청소년 생활〉이 독자 여러분께서 알아야 할  
이슈들을 한 데 모아 소개합니다.



##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2023년부터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이 '대학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징수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존폐 여부를 놓고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 통과되면서 4년제 대학 평균 7만원, 전문대 기준 평균 21만원에 달하던 입학금을 올해부터는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 만 나이 도입

올해 6월 28일부터는 '만 나이'로 기준이 통일 됩니다.  
우리나라는 매해 1월 1일이 되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1살씩 올라가는 '세는 나이' 문화가 통용되어왔는데요,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본인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만 나이'가 정착될 예정입니다.





### 체크무늬 교복 금지

올해 체크무늬 교복을 사용하던 전국 2백여 곳의 학교들이 모두 디자인을 새롭게 바꿀 예정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한 명품 브랜드와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분쟁이 불거진 것이 그 이유인데요. 더 멋지고 예쁜 디자인으로 새로워지길 기대합니다.

### 고교학점제 단계 적용

2023년부터는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부터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요. 고교학점제는 개인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방식입니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5년도에는 모든 학교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 최저시급 9,620원

올해 최저시급은 작년보다 460원 상승한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 시급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어디든지 적용이 되는데요, 청소년 여러분 또한 예외는 아니니, 혹시 아르바이트 계획이 있으시면 해당 사업장이 최저 시급을 잘 계산하고 있는지 꼭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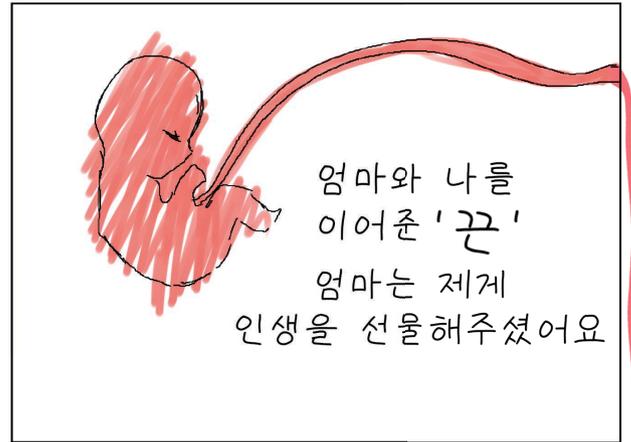
# 청소년 응원 프로젝트 네컷툰 수상작품 소개

## 엄마와 나를 이어준 끈 '태깅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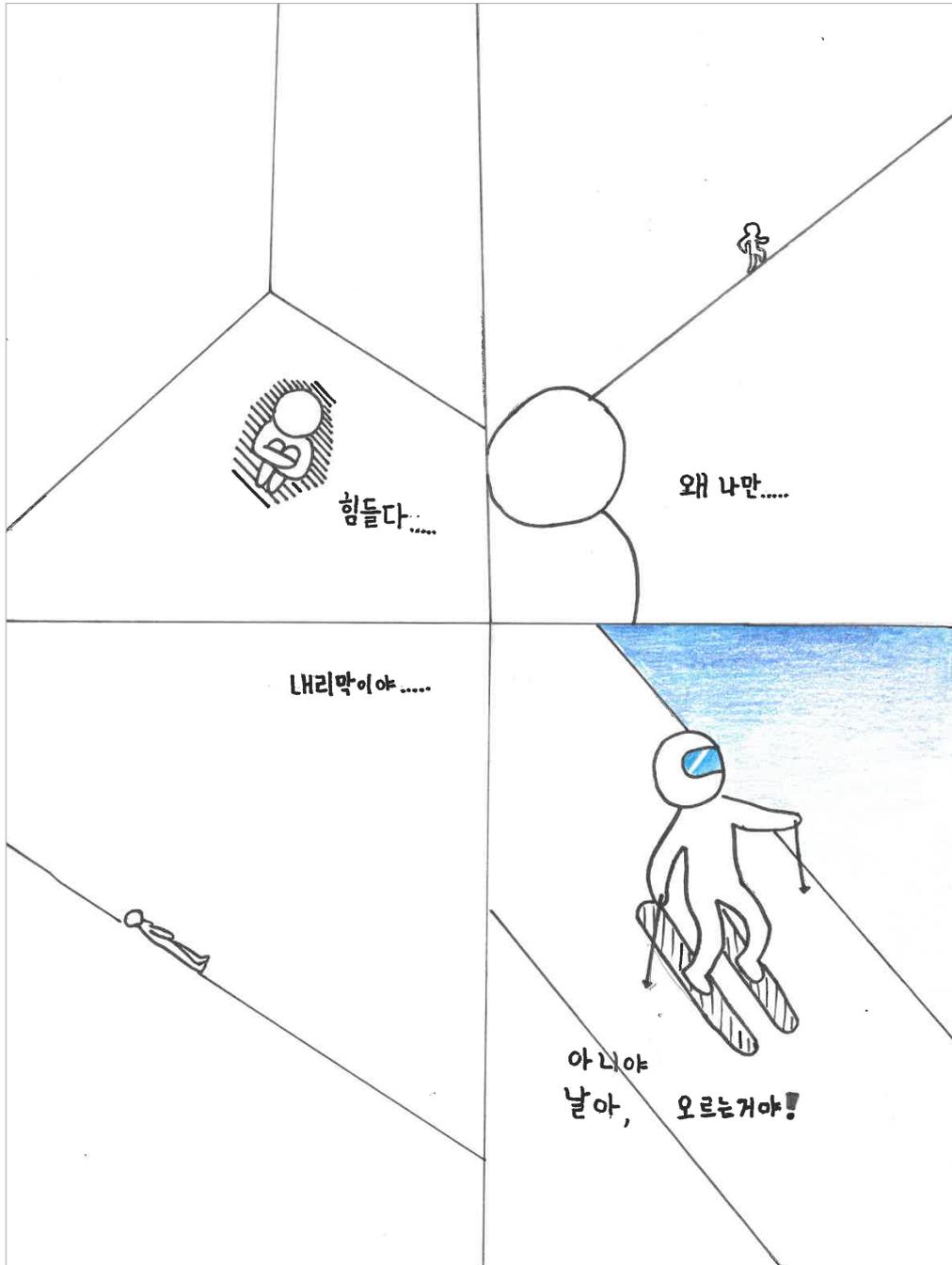
연초중학교 허혜인

공모전 주제를 보고 엄마와 나를 이어준 '끈', 태깅돌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다. 내가 오늘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준 엄마에게 느낀 감사와 마음을 이 작품을 통해 설명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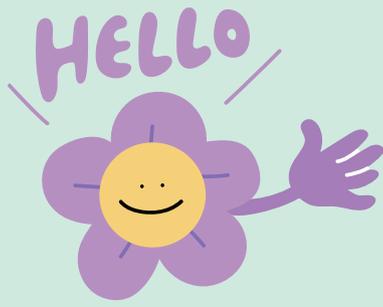
# 또 다른 비상

-글.그림 이해성



## 울진고등학교 이해성

좌절에 빠진 한 아이를 생각했다. 그 아이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내리막길은 가속도를 받기위한 스키점프대였으며 개인의 의지와 희망에 따라 얼마든지 날아오를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역발상을 표현해보았다.



# 2023년 교보교육재단 주요사업 일정 안내



구분	사업명	대상	선정인원	1월	2월	3월
청소년	청소년리더십사업 '체.인.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청소년	40명 내외	서울대와 함께하는 창의리더십 <체.인.지> 겨울아카데미 사전교육	<체.인.지> 겨울아카데미 본교육, 1박2일 현장탐방	
	교보 체육꿈나무 육성 장학사업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입상자	3기 14명 내외 (총 40명 내외 지원)		스포츠심리상담 및 1학기 장학금 지원	
	위기청소년지원 '마음두드림'	청소년교정시설 내 청소년	40명 내외			1학기 교육시작
	우리동네무장애지도	무장애 정보에 관심있는 청소년	200명 내외	22년도 정보 취합 및 업데이트		지도 플랫폼 기능 업데이트
	인성독서지원 책갈피	책을 통해 성장하고 싶은 청소년	60명 내외			
대학생	교보생명희망다솜 장학사업	보육시설 및 저소득 가정 대학신입생	20명 내외	21기 모집 마감	21기 면접	1학기 장학금 지원
가족/학부모	가족소통캠프	초등학생 이상 자녀가 있는 소통을 원하는 가족	320가족 1,300명 내외			캠프 참가가족 모집
	자녀의 문해력을 키우는 읽기와 쓰기 강좌	자녀의 문해력을 키우고 싶은 초등학생 학부모	100명 내외		학부모 모집	특강진행
	경제인성교육	경제교육에 관심있는 청소년 포함 가족	80가족 350명 내외			
	그린다솜이가족봉사단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봉사에 관심있는 가족	60가족 260명 내외			1차 봉사 참가가족 모집
교육단체	교육스타트업 지원	(인성)교육을 통해 소셜임팩트를 추구하는 교육 관련 단체(조직)	4개 단체 내외			
장애인	눈맞춤117cm	전국 장애인기관	40개 기관 내외			눈맞춤117cm 기관 공모
누구나	교보교육대상	교육을 통해 국민교육진흥과 참사람 육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부문별 1명 (총 4명 내외)			수상후보자 모집
	참사람에세이 공모전	일상 속 참사람을 알리고 싶은 이들	50명 내외			

2023년 교보교육재단에서 진행하는 공모전/교육/봉사 등 일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체.인.지〉 여름아카데미 청소년 모집		〈체.인.지〉 여름아카데미 사전교육	〈체.인.지〉 여름아카데미 본교육 및 현장탐방			2024 〈체.인.지〉 겨울아카데미 청소년 모집	
	교보 체육꿈나무 가족캠프	도서지원	제39회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	2학기 장학금 지원	3기 교보 체육꿈나무 장학생 모집		3기 교보 체육꿈나무 장학금 증서수여식	
				2학기 교육시작				
	무장애 자원봉사단 모집		무장애 지도 자원봉사 활동		봉사활동 중간평가			청소년 결과발표회/ 사업소감나누기
	인성도서선정	공모전 개최				시상 및 발표		
		장학생 지역봉사		2학기 장학금 지원			22기 신규장학생 모집	
(월 5차시 내외 총 33회차 운영)								
		학부모 모집	특강진행					
1차 참가가족 모집	1차 경제인성교육 진행				2차 참가가족 모집	2차 경제인성교육 진행		
		2차 봉사 참가가족 모집			3차 봉사 참가가족 모집			
		스타트업 공모	스타트업 지원					스타트업 데모데이
	기관별 나들이 진행							
		1차 예심	2차 현장실사	3차 본심	이사회		교보교육대상 시상식	
공모전 개최				시상 및 발표				



# 참사람 36.5℃

교보교육재단이 생각하는 참사람은 정직, 성실한 성품을 갖추고  
끊임없는 자기성장을 추구하며 자리가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성숙한 인격체입니다